

## 그냥드림 사업 재정비 통해 꼭 필요한 국민 중심 지원 강화

- 정은경 장관, ‘그냥드림’ 본 사업 시행 전 현장점검 -
- 연내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소 확대 -
- 정은경 장관, “꼭 필요한 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8일(월) 그냥드림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4월 21일(화) 광명시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본 사업 전환에 앞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용자 및 종사자의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추진방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냥드림 사업 성과>

그냥드림 사업은 긴급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별도의 복잡한 증빙 절차 없이도 식품과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 문턱을 낮춘 사회 안전망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병행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그냥드림 사업은 4월 15일 기준, 전국 68개 시군구에서 129개소의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8,123명의 국민이 긴급지원을 받았다. 이 중 19,422명을 상담하고, 9,160명을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가구 1,334명을 새롭게 발굴하는 등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 <그냥드림 사업 개선방안>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용 수요 급증으로 인한 대기 시간 가중 및 운영상의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 시행에 맞춰 사업 취지 홍보와 이용 안내를 강화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우선 전달되도록 관리 체계를 정교화할 계획이다.

① 성숙한 시민의식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초 이용 시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3월30일 시행) 또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현장 담당자가 불필요한 이용자를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② 꼭 필요한 취약계층 이용은 강화될 수 있도록 경찰 지구대, 경미범죄 심의위원회와 협업하여 생계형 범죄와 위기가구 의심 가구를 지원하고, 좋은 이웃들과 같은 위기가구 발굴 지역 네트워크 연계를 확대한다.

③ 그냥드림 사업장 운영상황을 정기 점검하여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운영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 <현장점검>

정은경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그냥드림 식품 제공 및 이용 절차 전반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이용자가 처음 사업장을 방문할 때 물품 지급을 위해 작성하는 ‘위기가구 자가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해보며, 이용자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과 편의성을 세밀하게 살폈다. 또한 이용객 밀집에 따른 대기 문제, 운영시간 및 인력 여건 개선 필요성 등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점검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그냥드림 사업장을 연내 229개 시군구 3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식품과 생필품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분들을 돕는 소중한 자원인 만큼,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 <붙임> 1. 그냥드림 현장방문 개요  
 2. 그냥드림 사업 개요  
 3. 그냥드림 포스터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책임자	과 장	권혜나 (044-202-3250)
		담당자	사무관	이홍남 (044-202-3251)



□ **개요**

- (목적) '그냥드림' 본 사업 시행에 앞서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점검, 동 사업 취지 홍보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 (일시) '26.4.21.(화), 14:00~14:50
- (장소) 광명시 푸드뱅크마켓센터 그냥드림 사업장  
 ※ 경기도 광명시 광삼로 9, 1층

□ **참석**

- (정부) 복지부 정은경 장관(주재),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경기도 복지사업과장 광명시 부시장, 통합돌봄과장
- (민간) 그냥드림 종사자 5명 (사업장 직원3, 공공 일자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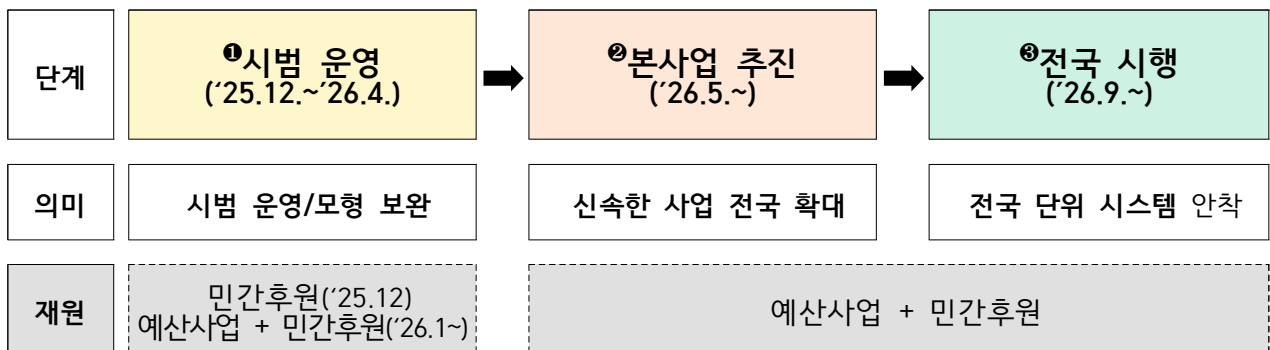
□ **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4:00 - 14:03 (3분)	◇ 영접 및 관계자 환담	공개
14:03 - 14:10 (7분)	◇ 그냥드림 사업 점검 및 이용자 환담	
14:10 - 14:15 (5분)	◇ 장관 모두 발언	
기자단 퇴장(비공개 전환)		
14:15 - 14:25 (10분)	◇ 센터소개 및 사업추진 현황 설명	비공개
14:25 - 14:45 (20분)	◇ 종사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14:45 - 14:50 (5분)	◇ 마무리 발언	

- (추진배경) 코로나19 기간 생계형 범죄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지방정부(서울·경기 등)의 먹거리 지원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
  - 사회적 시선·서류 부담으로 정부 지원 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의 신청주의 부담 완화 및 국민 보호 강화
  
- (주요내용) 취약계층을 포함한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설치하여 기본 먹거리·생필품 지원
  - (지원대상)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신청/소득기준 불필요)
  - (지원물품) 1인당 3~5개 품목 기본 먹거리·생필품(2만 원 한도)
    - \* 표준 제공물품 3~4개를 기본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물품 선정
  - (지원장소) 동주민센터·복지관·푸드뱅크 등에 코너 설치
  - (이용절차) 1차 이용 시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후 물품 지원
    - 2차 이용 시 의무 상담, 필요 시 복지자원 연계·사례 관리
    - \* 지원 필요자에게는 푸드뱅크 수준(월 1~2회) 물품 지속 제공. 상담 후 지속 지원 불필요자에 대해서는 추가 이용 제한(지자체 여건에 따라 제한 요건 설정)
  - (운영체계) 광역푸드뱅크 일괄구매 → 매월 기초푸드마켓 배송, 기초푸드마켓에서 배송된 물품+자체 모집품(1:1) 분배

- (추진방향) ①기존 푸드뱅크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신속 시행, ②정부재원 뿐 아니라 기업 사회공헌 등 민간 후원\* 활용(민·관 협업)

\* 신한금융(3년간 100억원)·한국청과(2억원)·롯데(3억원)·수출입은행(3억원) 등 후원 기 확보





어떻게 이용하나요?

- ✔ 거주지 푸드마켓 (뱅크) 내 '그냥드림 코너' 방문 수령
- ✔ 2번째 이용 시 기본 상담 진행 → 추가 지원 필요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 연계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생계 어려움으로 도움이 시급하나, 기존 복지제도로 즉시 보호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생계 위기로 도움이 절실한 이웃을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양보해 주세요. 준비된 물품이 항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일부 물품이 부족할 수 있는 점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